



제11대 경영경제대학 선거운동본부 [단] 공약집

1. 문화: 단(丹, 붉을 단)

1) 기부서점 운영

학우 간의 지식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도록 전공 및 일반 서적의 기부·대여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학습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책을 통해 마음이 연결되는 새로운 선순환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2) 분기별 맞춤형 행사 추진

계절의 흐름과 학기별 시기에 맞춰 학우들이 함께 웃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차별화된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작은 축제와 같은 일상이 되어 지친 학교생활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열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 타 단과대 교류 이벤트

타 단과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만나는 협력의 순간 속에서 경영경제대학의 문화적 저변을 넓혀가겠습니다.

4) 경영경제대학 체육대회 개최

각 학부/과의 울타리를 넘어 함께 땀 흘리고 웃을 수 있는 단합의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를 통해 배려와 협력의 가치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5) 경경학개론 프로그램 운영

선후배가 함께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과 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단과대로서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세대와 생각이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관계의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 복지: 단(檀, 믿을 단)

1) 불법 카메라 점검 강화

밀레니엄관(T관) 내 전 화장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우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공동구매 및 물품대여 사업 확대

학우들의 수요를 반영해 공동구매 및 대여 품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물품대여 사업의 일부인 우천 사업과 같은 경우는, 우산·드라이기 대여, 무료 우비 비치 등을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불편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생활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 경영경제대학 내 유학생 버디 프로그램 신설

경영경제대학 내에 유학생 맞춤형 버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유학생과 재학생이 1:1로 연결되는 상호 교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생활과 학교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학업과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재 지원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휴를 통해 실질적인 학습과 문화 적응을 지원하며, 유학생과 재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 시험기간 간식 지원 사업

중간·기말고사 기간 동안 밀레니엄관 앞에 간식 부스를 운영해 학우들이 바쁜 시험 일정 속에서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시험기간 동안 학우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오전·오후 시간대를 나누어 운영하고 수량적으로도 넉넉하게 준비하여 더 많은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음식점 및 카페 제휴 확대

학교 인근의 음식점과 카페, 특히 학우 이용률이 높은 곳을 중점으로 제휴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과의 협력을 통해 경영경제대학만의 생활 밀착형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복지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6) 야간 매점 운영 및 시험기간 응원 행사

시험기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우들을 위해 인공눈물, 머리끈, 간식 등의 간단한 편의용품을 마련하여 시험기간 밤샘 공부를 하는 학우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야간 매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랜덤복권·에너지음료 등으로 구성된 시험기간 응원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밀레니엄관 (T관) 24시간 개방 추진 (대체 강의실 운영 병행)

시험기간 최소 일주일 전부터 밀레니엄관을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내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 수준의 학습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체 강의실 운영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3. 소통: 단(段, 층계 단)

1) SNS 소통 채널 운영 강화

학우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온라인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주요 공지 및 행사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겠습니다.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체계를 정비하여 항상 열려 있고 즉각 대응하는 학생회를 실현하겠습니다.

2) 예산 집행내역 공개 및 투명 운영

모든 학우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이 학우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3) 과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경영경제대학 내 각 학부/과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전공별 특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과 간 균형을 이루고, 모든 학생이 공평한 학습 환경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학점 인정 과목 확대, 폐강 강의의 대체 과목 개설 등 실질적인 학사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4) 시설 개선 건의 채널 상시 운영

경영경제관 내 보수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상시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건의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며, 학우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 소모임 활성화 및 신규 개설 지원

경영경제대학 내 소모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과대 차원에서 각 소모임의 홍보와 모집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학우들의 다양한 진로 목표와 취미 활동을 반영해 새로운 소모임 개설을 장려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모임이 단순한 활동을 넘어 경경대 구성원 간 연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학업: 단(단, 밝을 단)

1) 전문직 및 어학 자격증 제휴 확대

학우들의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CPA, CTA, TOEIC, TOEFL 등 전문직 및 어학 자격증 관련 기관과의 제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직 분야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 자격증과의 제휴를 더욱 광범위하게 맺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접근성 높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단과대 차원의 지원 체계를 통해 학우들이 더 넓은 진로 선택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제휴 확대

학우들의 이용 선호도가 높은 지역(종로구, 서대문구, 부암동, 홍제역, 불광역 등)을 중심으로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과의 제휴를 확대하겠습니다. 시간권 추가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여, 더 집중할 수 있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언제나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보장하겠습니다.

3) 진로·경력 정보 통합 안내 시스템 구축

학우들이 다양한 진로와 경력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공식 인스타그램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로·취업·진학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케팅, 경영전략, 회계, 유통, 무역 등 전공별 분야에 맞춘 공모전, 인턴십,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경영경제대학만의 진로 네트워크 허브로 발전시켜 학우들이 학문과 커리어를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경영대의 도화 - 학술교류전

경영경제대학 내 학술 동아리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공별 연구 주제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학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케팅·경영전략·회계 등 세부 전공 간의 다양한 교류 및 공유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학문적 시야를 확장하겠습니다. 행사의 전야제에는 영화 상영회 혹은 스포츠 관람 등 학문과 여가가 공존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경영경제대학의 4개의 학부/과 학우 간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일 예정입니다.

5) 경영대 잡페어(이음 프로젝트)

경영경제대학 졸업 동문 선배님들을 분야별로 초청하여 현직 전문가와 재학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경력·진로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선배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 학우들이 희망 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경제대학이 학문을 넘어 경험과 커리어가 연결되는 장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